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콜로키움

전북도민일보 2015년 06월 11일 (목) 배청수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re Torrey, 戴明淑)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유타주립대 토레이 교수 초청·콜로키움 개최

전북일보 2015년 06월 11일 (목) 김원용 kimwy@jjan.kr

전주대학교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한 이날 콜로키움에서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전주대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 하태진 신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콜로키움 개최

전민일보 2015년 06월 11일 (목) 윤복진 기자 edy1204@hanmail.net

전주대학교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re Torrey)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와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국제뉴스 2015년 06월 11일 (목) 오승권 기자 onarao@hanmail.net



(전주=국제뉴스) 오승권 기자 = 전주대학교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re Torrey, 戴明淑)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전라일보 2015년 06월 11일 (목) 이병재기자 kanadasa@naver.com



▲ 전주대학교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 Torrey, 戴明淑)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주대,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콜로키움 개최

에듀뉴스 2015년 06월 12일 (금) 김용민 기자 yongmin@edunews.co.kr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re Torrey, 戴明淑)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콜로키움 개최

일요신문 2015년06월11일 정윤중 기자 ilyo66@ilyo.co.kr



[일요신문] 전주대학교는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re Torrey)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전북중앙신문, 2015년 06월 11일 (목) 정병창 jbc@jnn.co.kr



전주대학교가 유타주립대 토레이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전주대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 콜로키움 개최

전주매일신문, 2015-06-11, 김성봉 기자

전주대학교는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 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 Torrey, 戴明淑)교수가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研, 콜로키움 개최

전라매일신문, 2015년 06월 11일(목) 정석현 기자

전주대학교가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이날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 개최

전북연합신문, 2015년 06월 11일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DeBerniere Torrey, 戴明淑)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 교내 한지 산업관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원장 김래선)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

토레이 교수는 이날 서양문화, 특히 18세기에 조선에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천주교가 지역공동체 및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원재연 교수와 호남교회사연구소의 하태진 신부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 공동체' 주제 콜로키엄

뉴스1 (전주=뉴스1) 2015.06.11. 박아론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토레이 교수를 초청해 '전라도 천주교사의 전개와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콜로키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 연구팀이 주최하고, 전주대 대학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해외 대학과 공동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라도 천주교사 연구를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팀은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이데올로기'라는 연구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콜로키엄 성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주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